

‘역대급 불수능’... 국어 최고 난이도, 영어 1등급 반토막

대학가 소식



국민대 이호선 총무처장(오른쪽)이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저소득·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우수기관’ 선정 감사패 수여식에서 신동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복지사업과 기법활용을 하고 있다. /국민대

국민대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우수기관으로 감사패 받아

국민대학교(총장 유지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으로부터 ‘저소득·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우수기관’으로 선정, 지난 3일 오후 교내 본부관에서 감사패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국민대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11년 연속으로 성북구 내 600여 저소득 가정과 노인세대에 매년 120만원씩 총 12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왔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 구자관 (주)삼구아이앤씨 대표

서강대 경제대학원

‘2018 서강경제대상’에 김경환 교수·구자관 대표

서강대학교는 경제대학원과 경제대학원 총동문회가 ‘2018서강경제대상’ 수상자로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경환 교수와 (주)삼구아이앤씨 구자관 대표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서강경제대상은 연구 활동이 왕성하고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교수와 국가 경제에 기여한 사회 경제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으로 올해 8회째를 맞는다.

김 교수는 도시경제학 및 공공재정책 전문가로 미국 시라큐스대 조교수를 거쳐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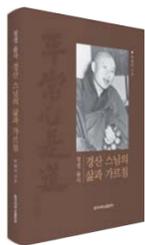
구 대표는 50년 동안 국내 최대 건물 종합관리 및 생산도급 등 다양한 분야의 아웃소싱 회사로 성장시켰다.

동국대 경산스님 일대기 출간

‘청정 율사 경산 스님의 삶과 가르침’

동국대학교는 교내 출판부가 ‘청정 율사 경산스님의 삶과 가르침’을 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책은 평생 불교 중흥의 원력을 실천하고 정화불사의 완성과 종단 화합의 성취를 위해 앞장서며 수행자의 길을 묵묵히 걸었던 경산 스님의 일대기를 정리했다.



/한용수 기자

평가원, 수능 채점 분석

국어 표준점수 전년 比 16점 상승 수학 최고점 가형 133·나형 139점 절대평가 영어 1등급자 비율 5.30%

지난달 치러진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어는 2005년 이후 가장 어려웠다. 지난해부터 절대평가로 전환된 영어 1등급자는 작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정도로 어렵게 출제된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어·수학 표준점수 최고점 상승

4일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2019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어, 수학 영역 표준점수 최고점과 1,2등급 구분점수(등급컷) 모두 전년 수능보다 높아졌다.

표준점수란 수험생의 상대적인 위치나 성취 수준을 나타내는 점수로 시험이 어려울수록 높아진다. 표준점수 최고점은 해당 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수험생의 표준점수다.

국어가가 가장 어려웠다.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50점으로 전년 수능(134점)보다 무려 16점이나 높아졌다. 만점자 비율도 0.03%(148명)로 역대 최저치(2011학년도 0.06%)를 갱신했다. 이는 올해 두 차례 모의평가보다 높고 이 중 최강 난이도로 평가받았던 6월모평(표준점수 최고점 140점)보다 높다.

국어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등급 구분 표준점수(등급컷)는 132점이었고 1등급 비율은 4.68%(2만4723명)로 나타났다. 2등급컷은 125점, 3등급컷은 117점, 4등급컷은 107점, 5등급컷은 95점 등

등급	국어		수학 가형		나형		원점수	영어 절대평가
	표준점수	비율(%)	표준점수	비율(%)	표준점수	비율(%)		
1	132	4.68	126	6.33	130	5.98	90	5.3
2	125	6.39	123	6.62	127	5.11	80	14.34
3	117	12.76	117	10.8	119	14.64	70	18.51
4	107	17.46	110	17.42	108	15.36	60	20.91
5	95	19.1	99	19.27	92	19.17	50	16.53
6	84	16.7	84	17.14	80	16.94	40	10.67
7	73	12.29	69	11.76	74	11.93	30	7.43
8	63	7.51	60	7.12	71	7.4	20	4.59
9	63미만	3.11	60미만	3.53	71미만	3.46	20미만	1.73

으로 집계됐다.

수학 역시 어려웠다. 수학기형 표준점수 최고점은 133점(전년 130점), 수능나형은 139점(전년 135점)으로 전년 수능보다 어렵게 출제됐고, 특히 인문계열 수험생이 치른 수능나형 체감 난이도가 높았다. 수학 만점자 비율은 수학기형 0.39%(655명), 수학나형 0.24%(810명)였다. 수학은 매우 어려웠던 올해 6월 모평(가형 145점, 나형 141점)보다는 다소 쉬웠다. 수학기형 1등급컷은 126점(6.33%, 1만675명), 수학나형 1등급컷은 130점(5.98%, 2만368명)이었다. 수학기형 2등급컷(123점), 3등급컷(117점), 4등급컷(110점), 5등급컷(99점) 등이고, 수학나형 2등급컷(127점), 3등급컷(119점), 4등급컷(108점), 5등급컷(92점)으로 집계됐다.

◆영어 ‘상대평가보다 어려웠다’

영어는 지난해 1등급자만 5만명이 넘었지만 올해 1등급자 비율이 5.30%(2만7942명)로 전년(10.03%)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정도로 어려웠다. 특히 영어는 상대평가 시절보다 더 어렵게 출제됐다. 역대 수능 영어 원점수 90점 이상 비율로 절대평가 1등급을 추정해보면, 2006학년도 4.7%, 2011학년도 4.3%를 제외하고 가장 낮았다. 상대평가 방식 비율로 봐도 2010학년도(5.31%), 2012학년도(6.53%)보다 1등급자 비율이 적었다. 영어 등급별 비율과 인원은 2등급(14.34%, 7만5565명), 3등급(18.51%, 9만7577명), 4등급(20.91%, 11만176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절대평가 한국사 1등급자는 올해 36.52%로 전년도(12.8%)와 비교해 대폭 증가했고, 이외 영역 등급 구분 표준점수는 과목에 따라 사회탐구(63~67점), 과학탐구(64~67점), 직업탐구(63~72점), 제2외국어/한문(64~80점) 등으로 나타났다. 사회탐구 표준점수 최고점은 경제과목이 69점으로 가장 높았고, 생활과윤리, 세계지리가 각 63점으로 가장 낮았다. 과목간 난이도 유불리를 조정하는 변환 표준점수 조정시 경제에서는 2~3점 내외 하락이 예상되고, 생활과윤리와 세계지리는 2~3점 내외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탐구 표준점수 최고점은 생명과학1이 72점으로 가장 높았고, 물리1, 물리2가 각 66점으로 낮았다. 과탐 변환 표준점수 환산시 생명과학1은 2

~3점 내외로 하락하고, 물리1, 물리2는 2~3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올해 수능시험이 고난도로 출제된데다 과목별 난이도 편차도 커 주로 수능 100%로 신입생을 뽑는 정시모집 합격 예측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영어와 국어의 경우 당장 내년도 입시를 치를 고2 학생의 경우 어떻게 출제될지 예상하기 어려워 불안감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국어가 어려워 주로 수학기형을 치른 자연계열 수험생들은 국어 성적이 낮을 경우 수학에서 아무리 높은 점수를 받아도 구조적으로 만회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는 “국어와 수학기형 표준점수 최고점 격차가 17점차로 자연계열 수험생들에게는 사실상 ‘국어 수능’으로 봐도 무방하다”면서 “자연계 학생이 국어를 못 봤을 경우 사실상 수학으로 만회가 가능한 구조”라고 분석했다.

한편 성적 통지표에는 상대평가 과목인 국어와 수학 탐구영역 등에는 표준점수와 백분위가 표기되고, 절대평가인 영어와 한국사는 등급만 표기된다. 수험생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5일 수험생에게 전달된다.

수험생들은 14일 마감되는 대학별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를 확인하고 정시지원전략을 짜야한다. 수시모집 등록은 19일까지, 미등록 총원에 따른 추가 합격통보는 26일, 추가등록 마감은 27일이다.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와 등록이 마무리된 뒤 29일부터 2019년 1월 3일까지 대학별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진행된다. 수험생은 가나다순별 한 곳씩 총 3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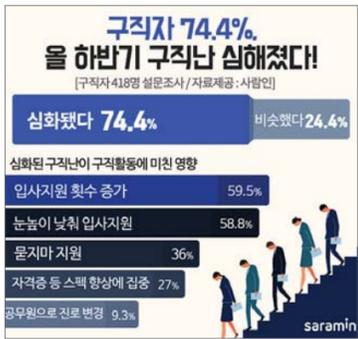
구직자 75% “하반기 체감구직난 더 심해”

사람인, 구직자 418명 설문 95% ‘취업 대한 두려움 느껴’

구직자 10명 중 7명 이상은 올해 하반기 구직난을 여느 때보다 심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사람인이 구직자 418명을 대상으로 ‘2018 하반기 체감 구직난’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4.4%가 올 하반기에 구직난이 심해진 것으로 느낀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67.6%)보다 약 7% 증가한 수치다.

구직난이 심화됐다고 느낀 이유(복수 응답)로는 ‘경기가 좋지 않은 것 같아서’(52.1%), ‘지원 경쟁률이 높아져서’(49.2%), ‘채용을 실시한 기업이 줄어서’



(45.7%), ‘질 낮은 일자리만 많은 것 같아서’(40.5%), ‘서류 등에서 탈락하는 횟수가 늘어서’(38.9%), ‘기업별 채용규모가 축소돼서’(36.7%), ‘채용 절차가 까다로워져서’(20.6%)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심화된 구직난이 구직자에게

끼친 영향(복수응답)으로는 ‘입사지원 횟수 증가’(59.5%), ‘눈높이 낮춰 입사지원’(58.8%)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밖에 ‘묻지마 지원’(36%), ‘자격증 등 스펙 향상에 집중’(27%), ‘공무원으로 진로 변경’(9.3%), ‘취업 사교육에 투자’(9.3%), ‘인턴 등 실무 경험 쌓기 매진’(8.7%), ‘해외 취업에 적극 나섬’(8%), ‘창업을 준비함’(7.7%) 등이었다.

특히 구직자 대부분(95.5%)이 구직난으로 취업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했고, 구직난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은 ‘불편을 느끼는 약간 심한 수준’(54.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치료를 요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답변도 16.1%에 달했다.

/한용수 기자

NE능률 3대 토익 인강 ‘반값 할인’

종합교육서비스기업 NE능률(전 능률교육)은 토마토토의 공식 인강 사이트 ‘토마토클래스’가 토단비 출시 5주년을 기념해 3대 대표 토익강좌 반값 할인 이벤트를 오는 14일 정오까지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토단비는 토익 단기달성 강좌로 출시 5년만에 누적 수강생 13만명을 돌파한 토마토클래스의 대표적인 토익 인강이다. 4주 안에 목표 점수를 달성하도록 강의수를 절반으로 줄여 학습시간을 단축하고 핵심을 통해 핵심 내용만 반복 수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이벤트에 따라 ‘토단비 생기초’, ‘토단비 700’, ‘2학년 토익’ 등 토마토클래스 3대 대표 강좌 수강생은 출석이나 목표 점수 달성 등의 조건 없이 수강료 50% 할인 혜택을 받는다.

토단비 생기초는 영어 왕초보를 위한 강좌로 시중 토익 기초 강의보다 쉽게 학습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토단비 700은 4주간 토익 700점 달성을 목표로 하는 입문 강좌이고, 2학년 토익은 입문부터 실전까지 한번에 학습해 단기간 고득점 달성을 목표로 하는 대학생 전문 토익 코스 강의다. /한용수 기자



올해 채용 서비스업 활발, 건설업 소강

잡코리아, 1월~11월 채용 분석

올해 채용 시장에서 서비스업종 채용이 가장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직은 IT정보통신업종이 신입직에선 제조생산업종에서 채용 공고가 많았다.

잡코리아는 올해 1월~11월까지 자사 사이트에 등록된 채용공고 수를 업종별

로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채용공고가 가장 많이 등록된 산업분야는 ‘서비스업’(23.6%)이었고, 이어 금융업(15.9%), IT정보통신업(15.1%) 제조생산업(13.2%) 건설업(7.8%) 순으로 채용공고가 많았다.

지난해와 비교해 채용공고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은 ‘IT정보통신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4%포인트 증가(12.7%→15.1%)였다. 건설업도 지난해 동기 대비 1.8%포인트 증가(6.0%→7.8%)였고, 금융업은 0.1%포인트(15.8%→15.9%) 채용공고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신입직 채용공고가 가장 많이 등록된 업종은 ‘제조생산업’(22.9%)이었고, 이어 서비스업(18.9%) IT정보통신업(11.9%) 건설업(10.3%) 순으로 신입직 채용공고가 많이 등록됐다. /한용수 기자